

만 쓰 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교회 형제 자매들께서
제 25년의 사제생활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988. 2. 12.

사제수품
명동 성당

2013. 2. 12.

사제수품 25주년
삼성동 성당

물 씀하신 대로
지어기 이 뿐이지 기를
바립니다

심홍보 신부





차례

6	묵주기도 요령
10	묵주기도(로사리오) 바치는 법
11	묵주기도 준비 기도문
13	환희의 신비
33	빛의 신비
51	고통의 신비
73	영광의 신비
	부록
94	묵주기도의 유래와 의미
96	묵주기도를 통한 기도생활
98	묵주의 9일기도
102	묵주기도 안에 나오는 염경 기도문





묵주기도 요령

이 책으로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는 먼저 자기가 바치고자 하는 각 신비의 의미를 음미하고 나서, 각 단의 묵상 주제에 따른 성경 말씀을 읽고, 청원 기도를 바친 후, 각 개인의 지향을 청하고 염경기도를 바치며 주님 구원의 신비를 관상합니다.

묵상 주제를 염두에 두고 염경 기도문을 계속 되풀이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어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 신비의 현장 안에 함께 불러들여 주님과 일치시켜 주십니다. 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 신비 안에서 머무르며, 주님과 함께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은총과 기쁨을 얻게 됩니다.

묵주기도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고

기뻐하는 ‘환희의 신비’ 와,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빛의 신비’,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난 당하시는 ‘고통의 신비’, 악의 세력인 죽음을 누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생명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시고, 교회의 모범으로 마리아를 영광스럽게 하늘로 불러 올리셔서 하늘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신비를 묵상하는 ‘영광의 신비’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신비마다 구원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 묵상하도록 해 줍니다.

각 신비의 각 단 묵상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환희의 신비

-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임태하심
-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
-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
-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
-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

빛의 신비

-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
-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
-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
-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
-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

고통의 신비

-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
-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
-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
-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심
-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

영광의 신비

-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
-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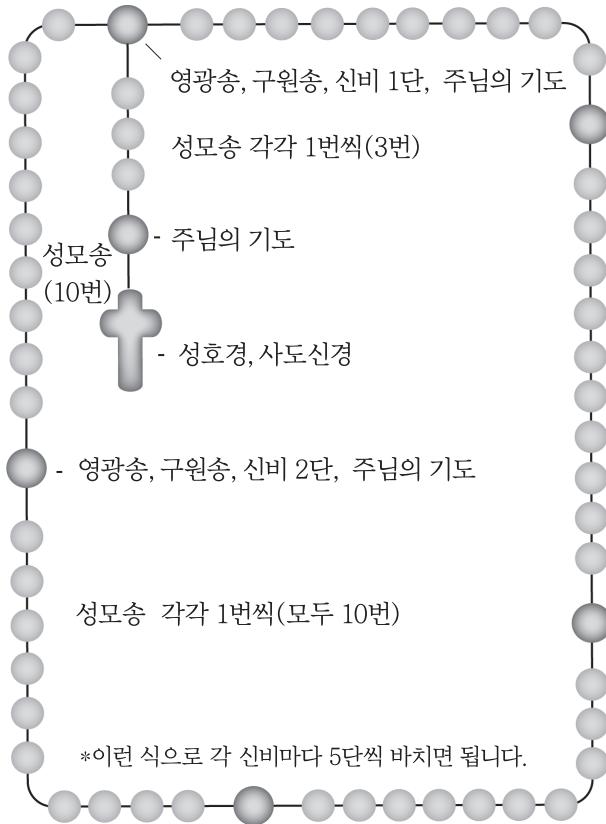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

한 주간 동안 목주기도를 바칠 때는 월요일에 환희의 신비를, 화요일에 고통의 신비를, 수요일에 영광의 신비를, 목요일에 빛의 신비를, 금요일에 고통의 신비를, 토요일에 영광의 신비를, 주일에는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매 일 목주의 기도를 바칠 때는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를 차례로 바칠 수 있습니다.

10 북주기도(로사리오) 바치는 법

북주기도(로사리오) 바치는 법



묵주기도 준비 기도문

“언제나 저희에게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총을 청하며 묵주기도를 바치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 구원의 신비를 깨닫게 해주시고, 저(희)를 그 구원의 신비에 참여케 하시어, 제가(저희 모두가 한 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복음의 말씀을 따라 기도와 희생과 봉사의 사도적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평화의 신비 |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임태하심을 묵상합시다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
 합시다

5단 마리아께서 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
 으심을 묵상합시다

‘환희의 신비’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경축하고 기뻐하는 천사들의 흥겨운 노랫소리를 기억하게 해줍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루카 2, 14)

기쁜 소식에 대한 설렘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겸손과 순명에서 시작하여,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서 하느님의 소명을 확인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윽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세주의 탄생!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필리 2, 6-7)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아버지 하느님께 봉헌하고, 예수가 하느님 안에 살아 계심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환희의 신비를 묵상하며, 1단에서 내가 해왔던 일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돌이켜 보고,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쓰시고자 하시는지 찾습니다. 2단에서는 주님의 복음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자기가 알 아들은 뜻이 참으로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공동 식별함으로써 확고하게 받아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깨닫고 받아들인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성령께 도우심을 청합니다. 3단에서는 하느님의 뜻이신 ‘말씀이 사실로 된’ 구세주의 탄생처럼, 우리가 공동체의 식별 과정을 통해 온전히 깨닫고 받아들인 주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주님과 함께 구원 사업을 수행하는 주님의 협조자가 됩니다. 또한 탄생하신 구세주를 알아보는 표가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루카 2, 12)라는 예언을 기억하며,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내어줍니다.
4단에서는 마치 우리가 씨를 심고 물을 주어도 씨
앗에서 짹이 돋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애써 실천하는 일과 그 일이 주님 안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 봉헌합니다.
5단에서는 우리가 바친 그 열매나 불안한 미래가
참으로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확인되어,
기쁨에 넘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열경 기도

◆ 성호경

(묵주기도를 통해 주님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
고자 하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묵주 십자 고상의
다리 부분에 입을 맞추고, 십자 고상을 이마와 가
슴과 양어깨에 대며 성호를 긋습니다)

◆ 사도 신경,

◆ 주님의 기도,



◆ 성모송(3번),

◆ 영광송,

◆ 구원송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
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예수님의 탄생 예고(루카 1, 26-38)

1 ²⁶여섯째 달에 하느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이라는 고을로 보내시어, ²⁷다윗 집 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²⁸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한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²⁹이 말에 마리아는 몸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³⁰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느님의 총애를 받았다. ³¹보라, 이제 네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³²그분께서



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느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분께 주시어,³³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³⁴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³⁵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 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느님의 아드님이라고 불릴 것이다.³⁶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임태하였다. 아이를 못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여섯 달이 되었다.³⁷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³⁸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 들려온 하느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 예기치 못했던 일이 저희에게 닥쳐올 때마다,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 저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명확히 알아듣고 묵묵히 받아들이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영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다(루카1, 39-56)

1³⁹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⁴⁰그리고 즈카르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인사하였다. ⁴¹엘리사벳이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을 때 그의 태 안에서 아기가 뛰놀 았다.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가득 차 ⁴²큰 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시며 당신 태종의 아기도 복되십니다. ⁴³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 어찌 된 일입니까? ⁴⁴보십시오, 당신의 인사말 소리가 제 귀에 들리자 저의 태 안에서 아기가 즐거워 뛰놀았습니다. ⁴⁵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⁴⁶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⁴⁷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뻐 뛰니⁴⁸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하리니⁴⁹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⁵⁰그분의 자비는 대대로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미칩니다.⁵¹그분께서는 당신 팔로 권능을 떨치시어 마음속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흘으셨습니다.⁵²통치자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으며⁵³굶주린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유한 자들을 빈손으로 내치셨습니다.⁵⁴당신의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거두어 주셨으니⁵⁵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미칠 것입니다.”⁵⁶마리아는 석 달가량 엘리사벳과 함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어머니’가 오심으로써 뱃속의 세례자 요한이 기뻐뛰놀 정도로 반기는 엘리사벳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함께할 동료들을 보내주시고, 주님의 뜻을 실행하면서 관련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들어 주님의 목소리를 더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도록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주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예수님의 탄생(루카 2, 1-14)

2 ¹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²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³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⁴요셉도 갈릴래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⁵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⁶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 날이 되어, ⁷첫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뉄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⁸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 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⁹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¹⁰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¹¹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¹²너희는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¹³그때에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¹⁴“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구세주 그리
스도께서 포대기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갓난
아기의 표정으로 오셨음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제가 겪도록 맡기신 일을 수행하
면서 제 선입관과 의지와 계획을 버리고, 세상 사
회의 방식이 아니라, 가난하게 태어나신 주님처럼
순수하고 단순하며 명확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이루게 하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봉헌하다(루카2, 22-35)

2 ²²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거행할 날이 되자,
그들은 아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라가 주님께
바쳤다. ²³주님의 율법에 “태를 열고 나온 사내아이
는 모두 주님께 봉헌해야 한다.”고 기록된 대로 한
것이다. ²⁴그들은 또한 주님의 율법에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를” 바치라고 명령
한 대로 제물을 바쳤다.

²⁵그런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며 이스라엘이 위로받을 때

를 기다리는 이였는데, 성령께서 그 위에 머물러 계셨다. ²⁶성령께서는 그에게 주님의 그리스도를 뵙기 전에는 죽지 않으리라고 알려 주셨다. ²⁷그가 성령에 이끌려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기에 관한 율법의 관례를 준수하려고 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오자, ²⁸그는 아기를 두 팔에 받아 안고 이렇게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²⁹“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³⁰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³¹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³²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

³³아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기를 두고 하는 이 말에 놀라워하였다. ³⁴시메온은 그들을 축복하고 나서 아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쓰러지게도 하고 일어나게 도 하며, 또 반대를 받는 표징이 되도록 정해졌습니다.



³⁵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꿰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자신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아까운 아들 예수를 주님께 봉헌하는 마리아와 요셉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의 온 정성과 노력과 땀과 애정을 다 쏟아 저희가 깨달은 주님의 뜻을 실행하고자 하오니 이 땅에서 이루어주시고, 그 모든 영광과 찬미가 주님 나라에 다다르게 하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5단 마리아께서 잃으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예수님의 소년 시절 – 성전에서 찾은 예수님(루카 2, 41–52)

2 ⁴¹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⁴²예수님이 열두 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⁴³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에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⁴⁴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⁴⁵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았다. ⁴⁶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⁴⁷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⁴⁸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네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⁴⁹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⁵⁰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⁵¹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⁵²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느님과 사람들의 총애도 더하여 갔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의 집
인 성전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머무시는 아들 예수
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실현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진행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셔서, 저희가
애착이나 과욕으로 손상시키지 않고 주님의 힘을
받아 지치거나 포기하지도 않으며 주님 나라의 완
성을 위해 부단히 투신하게 하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 빛의 신비 ||

- 1단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빛의 신비’는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활, 즉 인류 구원을 위한 하느님 사랑의 표현을 말씀과 행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을 묵상하게 됩니다.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뵈 것이다.”(요한 14, 9)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실제 현실로 증명해 보여주시고,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한 가치 판단과 방법과 과정을 일러주시고 성체성사에 이르는 현신적인 희생을 보여주신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며, 주님의 전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베풀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를 바치며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하느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주님의 뜻을 명확히 체득하고 주님의 뒤를 이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도록 투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느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르시고 그분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됩니다.”(1요한 4, 11-12)

우리는 빛의 신비를 묵상하며, 1단에서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나를 버리고 주님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인류사회를 위해 희생 봉사하고자 다짐합니다. 2단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세적인 어려움에 꿋꿋이 맞서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청합니다. 3단에서는 성령의 힘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죄와 악의 굴레에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오류에 빠진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청합니다. 4단에서는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현세적인 축복과 은총을 받아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는 데 헌신하고자 봉헌합니다. 5단에서는 주님



께서 내려주신 생명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실현하고자 노력합니다.

열경 기도

◆ 성호경

(묵주기도를 통해 주님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묵주 십자 고상의 다리 부분에 입을 맞추고, 십자 고상을 이마와 가슴과 양어깨에 대며 성호를 긋습니다)

◆ 사도 신경,

◆ 주님의 기도,

◆ 성모송(3번),

◆ 영광송,



◆ 구원송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
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단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마태 3,13-17)

3 ¹³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래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¹⁴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¹⁵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 들였다. ¹⁶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¹⁷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죄를 짓지 않았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까지 저를 돌봐주신 주님과 주님의 협조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청하오니, 제 자신의 생각과 의지와 느낌과 경험에 의지해 왔던 저를 버리고 주님과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와 인류사회를 위해 희생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2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요한 2, 1-11)

2 ¹사흘째 되는 날, 갈릴래아 카나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²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³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⁴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⁵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⁶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



에 쓰는 돌로 된 물독 여섯 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두세 동이들이였다. ⁷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⁸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장에게 날라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 갔다. ⁹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을 퍼 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¹⁰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 두셨군요.” ¹¹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갈릴래아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때가 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도 어머니의 청에 따라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축복과 기쁨을 선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전능과 인자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청하오니,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세적인 어려움에 꿋꿋이 맞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세요.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3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루카 4, 14-21)

4 ¹⁴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래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¹⁵예수님께서는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¹⁶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¹⁷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¹⁸“주님께서 나에게 기름

을 부어 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¹⁹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²⁰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²¹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성령을 받고, 갈릴래아에서 복음을 선포하신 후 나자렛 회당에서 읽으신 성경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이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성령으로 양성시켜 주시어,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복음을, 죄와 악의 굴레에 갇힌 이들에게 해방을, 오류에 빠진 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4단 예수님이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예수님(루카 9, 28-36)

9²⁸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오르셨다. ²⁹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 ³⁰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³¹영광에 싸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을 말하고 있었다. ³²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나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분과 함께 서 있는 두 사람도 보았다. ³³그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서 떠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스승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다. ³⁴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구름이 일더니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자 제자들은 그만 겁이 났다. ³⁵이어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선택한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³⁶이러한 소리가 울린 뒤에는 예수님만 보였다. 제자들은 침묵을 지켜, 자기들이 본 것을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세상을 구하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영광스럽게 부활하실 주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현세적인 축복과 은총을 제 자신과 일가친척을 위해서만 사용하려는 욕심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인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루는데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성체성사를 세우시는 예수님(마태 26, 26-30)

26 ²⁶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27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모두 이 잔을 마셔라. ²⁸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²⁹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이제부터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³⁰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몸과 피를 내주시며 십자가상 제사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예수님이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성체성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비오니 주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으로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곳에서 주님의 사명을 실현하게 하소서. 아멘.

열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 10번, 영광송, 구원송





||| 고통의 신비

-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수난 당하시는 ‘고통의 신비’는 이사야 예언자가 언급한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이사 52, 13-53, 12)를 연상케 합니다. 특별히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 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텔 깍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

에서 잘려 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이사 53, 4-8)는 구절에서 수난 당하시는 주님이 연상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시느라고 음식을 드실 겨를도 없이 바쁘십니다. (마르 3, 20; 6, 31). 지금까지 당신 백성들에게 온갖 정열과 애정을 다 쏟아 부으신 주님은 마지막으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주님 자신의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은 겟 세마니 동산에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꺼이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피와 땀을 흘리시며 기도하십니다.

마침내 주님은 시기심 가득 찬 종교지도자들에게 잡혀 터무니없는 말로 고발당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애정을 쏟아 부었던 백성들은 주님을 거부하고, 제자들은 모두 도망쳐 버립니다. 이교 총독인 빌라도는 인간의 권위로 하느님의 권위를 누를 수 없음을 알았지만 자신의 자리 보존을 위해

주님에게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주님은 온갖 모욕과 머리가 빠개질 듯한 고통을 당하십니다. 주님은 혼자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변함이 없는 것인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기에, 그리고 진리와 사랑만이 악을 누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기에 끗끗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악의 세력들은 마지막 죽음의 현장인 십자가상에서마저 주님의 사명을 포기하라고 유혹하지만,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다 이루십니다. 주님을 거부하는 이들을 위해 대신 용서를 빌어주시고, 자신은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리라는 희망에 부풀어 자비하신 아버지께 향합니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루카 23, 46)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단지 죄 없는 사람의 죽음과 그에 따른 감상적인 동정을 넘어, 인간에게 향한 하느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백인대장

처럼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루카 23, 47)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며, 1단에서 나의 욕심과 의지와 생각을 감정과 함께 벗어 던지고 주님의 뜻을 찾습니다. 2단에서는 갖은 곤경과 박해 속에서도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다짐합니다. 3단에서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무시되더라도 꾸꿋이 그리고 항구할 수 있는 은혜를 청합니다. 4단에서는 십자가를 무겁게 하는 우리의 악행과 십자가를 가볍게 하는 우리의 선행을 동시에 바라봅니다. 5단에서는 주님의 사도가 되어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께서 남기고 가신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를 기억하고 주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열경 기도

◆ 성호경

(묵주기도를 통해 주님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고
자 하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묵주 십자 고상의
다리 부분에 입을 맞추고, 십자 고상을 이마와 가
슴과 양어깨에 대며 성호를 긁습니다)

◆ 사도 신경,

◆ 주님의 기도,

◆ 성모송(3번),

◆ 영광송,

◆ 구원송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
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벼림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피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심(마르 14, 32-42)

14 ³²그들은 갯세마니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³³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³⁴그래서 그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³⁵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 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³⁶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

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³⁷ 그리고 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³⁸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하시고,³⁹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⁴⁰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⁴¹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⁴²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상념과 갈등과 싸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하고 싶고 또 제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행하고자 하는 일과 방법이 참으로 주님의 뜻 안에 있는지 확인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내려주신 사명은 잊고 자신의 일에만 빠져있는 저를 어여삐 여기시어 이웃 형제자매의 처지도 돌보게 하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2단 예수님이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대사제 앞에 서신 예수님(마태 26, 57-68)

26 ⁵⁷그들은 예수님을 불잡아 카야파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곳에는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모여 있었다. ⁵⁸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까지 가서, 결말을 보려고 안뜰로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았다. ⁵⁹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 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거짓 증언을 찾았다. ⁶⁰거짓 증인들이 많이 나섰지만 하나도 찾아내지 못하였다. 마침내 두 사람이 나서서, ⁶¹“이자가 ‘나는 하느님의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⁶²그러자 대사제



가 일어나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소? 이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 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⁶³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물고 계셨다. 대사제가 말하였다. “내가 명령하오. ‘살아 계신 하느님 앞에서 맹세를 하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밝히시오.’” ⁶⁴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⁶⁵그때에 대사제가 자기 걸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자가 하느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방금 여러분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⁶⁶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그자는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⁶⁷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주먹으로 쳤다. 더러는 손찌검을 하면서, ⁶⁸“메시아야, 알아맞혀 보아라. 너를 친 사람이 누구냐?” 하였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대사제들이 시기와 질투로 가득 차 허울 좋은 권위로 짓눌러 매를 맞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신분상승과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억누르고 있는 제 자신을 용서해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 이웃 형제자매를 사랑하다가 손해를 보거나 박해를 당해도 주님께서 내려 주시는 은총의 힘으로 항구하게 하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빌라도의 심문(마르 15, 1-5, 16-20)

15 ¹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 곧 온 최고 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 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²빌라도가 예수 님께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하고 묻자, 그 분께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³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 소하였다. ⁴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 소하고 있지 않소?” 하고 물었으나, ⁵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상하게 여겼다.

¹⁶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¹⁷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¹⁸“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¹⁹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²⁰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진리와 사랑을 거부하다 못해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 앞에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과 말씀을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지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를 수 있는 확고한 믿음을 주소서. 아멘.

열정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4단 예수님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루카 23, 13-18. 20-26)

23 ¹³빌라도는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¹⁴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을 선동한다고 나에게 끌고 왔는데, 보다시피 내가 여러분 앞에서 신문해 보았지만, 이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고소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¹⁵헤로데가 이 사람을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을 보면 그도 찾지 못한 것이오. 보다시피 이 사람은 사형을 받아 마땅한 짓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¹⁶그러니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¹⁷⁾그는 축제 때마다



그들에게 한 사람을 풀어 줄 의무가 있었다.¹⁸ 그러자 그들은 일제히 소리를 질렀다. “그자는 없애고 바라 빠를 풀어 주시오.”²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 주고 싶어서 그들에게 다시 이야기하였지만,²¹ 그들은 “그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쳤다.²² 빌라도가 세 번째로 그들에게,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죄목을 하나도 찾지 못하였소. 그래서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하고 풀어 주겠소.” 하자,²³ 그들이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그치며 요구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거세졌다.²⁴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하였다.²⁵ 그리하여 그는 반란과 살인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자를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풀어 주고, 예수님은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넘겨주었다.²⁶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가다가, 시골에서 오고 있던 시몬이라는 어떤 키레네 사람을 붙잡아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하였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십자가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해골산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의 죄로 주님 십자가의 무게만 높여왔음을 뉘우치며 비오니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교회와 가난하고 고통 받는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희생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5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루카 23, 33-49)

23 ³³‘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두 죄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그분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³⁴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 그분의 걸옷을 나누어 가졌다. ³⁵백성들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이자가 다른 이들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하느님의 메시아, 선택된 이라면 자신도 구원해 보라지.” 하며 빙정

거렸다. ³⁶군사들도 예수님을 조롱하였다.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³⁷말하였다. “네가 유다인들의 임금이라면 너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³⁸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붙어 있었다. ³⁹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죄수 하나도,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시오? 당신 자신과 우리를 구원해 보시오.” 하며 그분을 모독하였다. ⁴⁰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같이 처형을 받는 주제에 너는 하느님이 두렵지도 않으느냐? ⁴¹우리야 당연히 우리가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 이분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셨다.” ⁴²그러고 나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였다. ⁴³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⁴⁴낮 열두 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세 시까지 계속되었다. ⁴⁵해가 어두워진 것이다. 그때에 성전 휘장 한가운데가 두 갈래로 찢어졌다. ⁴⁶그리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셨다. “아버지, ‘제 영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다. ⁴⁷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백인대장은 하느님을 찬양하며, “정녕 이 사람은 의로운 분이셨다.” 하고 말하였다. ⁴⁸구경하러 몰려들었던 군중도 모두 그 광경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 ⁴⁹예수님의 모든 친지와 갈릴래아에서부터 그분을 함께 따라온 여자들은 멀찍이 서서 그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제 죄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도 아버지 하느님께 저를 위해 대신 용서를 청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겸손되어 청하오니, 저희가 악의 유혹과 죄를 끊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겪으시고 남은 고통을 선행으로 채우게 해주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IV 영광의 신비

-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 올리심을
 묵상합시다
-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
 을 묵상합시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살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1요한 4, 9, 11)

주님은 악의 세력인 죽음을 누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가난하고 벼림 받은 이들의 도시 갈릴래아로 가라고 명하십니다. 그리스도 주님은 주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베푸셨던 바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도록 명하시고 하늘에 올라 하느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마태 28, 18-20)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를 그리스도 주님과 일치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건설하도록 이끄시고,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

하신 주님의 영은 교회의 생명이요, 운전사이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는 백성들의 모범을 주님의 모친이신 마리아에게서 발견합니다. 끊임없이 그리고 끝없이 하느님의 뜻을 찾고 묵묵히 따랐던 마리아의 삶을 우리 신앙생활의 모범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모 마리아에게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라고 전구기도를 바치며, 성모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몸을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영광스럽게 하늘로 불러 올리셨고, 하늘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우리는 성모 마리아가 주님과 함께 누리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기쁨과 행복을 갈망하며,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신비’를 묵상하며, 1단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려운 이들의 삶으

로 들어갑니다. 2단에서는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내 일상과 내 활동 안에서 삶으로 증언하기 위해 확고한 믿음을 다지며, 성령을 기다립니다. 3단에서는 성령을 받아,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사도가 됩니다. 4, 5단에서는 우리 교회의 모범이신 마리아를 공경하고 본받아, 우리에게도 주실 영광을 기억하며 주님 사랑의 사도적 열성을 다합니다.

엮경기도

◆ 성호경

(묵주기도를 통해 주님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고자 하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묵주 십자 고상의 다리 부분에 입을 맞추고, 십자 고상을 이마와 가슴과 양어깨에 대며 성호를 긋습니다)

◆ 사도 신경,

◆ 주님의 기도,

◆ 성모송(3번),

◆ 영광송,

◆ 구원송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
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
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단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묵상합시다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마태 28, 1-10)

28 ¹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 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²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³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⁴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⁵그때에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⁶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⁷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래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⁸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⁹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¹⁰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래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가난하고 버림받은 이들에게로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청하오니, 저희가 주님을 믿지 않고,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 안에서 주님을 뵈옵고 증거하게 하소서. 아멘.

열정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승천하신 예수님(마태 28, 16-20; 사도 1, 6-11)

28 ¹⁶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¹⁷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¹⁸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¹⁹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²⁰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1⁶ 사도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께 물었다.
“주님, 지금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다시 나라를 일으
키실 때입니까?”⁷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
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으로 정하
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⁸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
게 내리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기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⁹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
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¹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동
안 그들이 하늘을 유심히 바라보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¹¹ 이렇게 말하였다.
“갈릴래아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승천하신 저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보는 앞
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의 영광 속에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오른편에 앉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승천하시던 그 모습으로 마지막 날 저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하고, 가까이한 것을 깨닫고, 깨달은 것을 실천하게 해주소서. 아멘.

열정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3단 예수님이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성령강림과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사도 2, 1-4. 22-24. 32-33. 36)

2 ¹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²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 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³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⁴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²²이스라엘인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자렛 사람 예수님은 하느님께서 여러 기



적과 이적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확인해 주신 분이십니다. 하느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에서 그것들을 일으키셨습니다. ²³하느님께서 미리 정하신 계획과 예지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지신 그분을, 여러분은 무법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²⁴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에 사로잡혀 계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³²이 예수님을 하느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우리는 모두 그 증인입니다. ³³하느님의 오른쪽으로 들어 올려지신 그분께서는 약속된 성령을 아버지에게서 받으신 다음,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것처럼 그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³⁶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분명히 알아 두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영을 받아 주님의 증거자가 되가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주님의 영인 성령을 보내주시어 세상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열정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4단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하늘에 불러올리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교황 비오 12세의 교황령, ‘지극히 인자하신 하느님’에서

2세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부들은 동정 마리아를 새 아담과 밀접히 연결되고 그에게 종속된 새 하와로 제시해 주면서 모친과 아드님께서는 지옥의 원수와 투쟁하는 데 언제나 함께하시고, 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투쟁에서 사도 바오로가 언제나 연관시키는 ‘죄와 죽음’을 함께 누르시고 함께 완전한 승리에 도달하게 되시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이 마지막 승리의 본질적 부분이고 상급이었던 것처럼 복되신 동정녀께서

아드님과 함께한 그 투쟁도 성모님의 동정 육신이 영광을 받음으로써 끝맺어져야 했다. “이 썩을 몸이 불멸의 옷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불사의 옷을 입게 될 때에는 ‘승리가 죽음을 삼켜 버렸다.’라는 성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사도 바오로는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원한 같은 예정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오묘히 결합되시고 원죄 없이 임태되시며 천주의 모친 되심에도 동정을 보존하시고 죄와 그 결과 곧 죽음을 완전히 이기신 우리 구속자의 인자로운 동반자가 되신 위대한 천주의 모친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모든 특권으로써 죽음의 부패를 피하시고, 당신 아드님처럼 죽음을 이기시어, 영혼과 육신을 지니신 채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올리심을 받으셨다. 천주의 모친께서는 그 곳에서 세세 대대 불사불멸의 왕이신 당신 아드님의 오른편에서 여왕으로 빛나고 계신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마리아를 불러올리시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써 오늘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를 기억하며 청하오니, 저희도 주님의 어머니처럼 매일의 생활 안에서 주님의 뜻을 기리고 따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5단 예수님께서 마리아께
천상 모후의 관을
씌우심을 묵상합시다



말씀

(에페1, 22-2, 2. 4-10)

1 ²²만물을 그리스도의 발아래 굴복시키시고, 만물 위에 계신 그분을 교회에 머리로 주셨습니다. ²³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모든 면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해 있습니다.

2 ¹여러분도 전에는 잘못과 죄를 저질러 죽었던 사람입니다. ²그 안에서 여러분은 한때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 공중을 다스리는 지배자, 곧 지금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안에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⁴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⁵잘못을 저질러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 여러분은 이렇게 은총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 ⁶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⁷하느님께서는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로, 당신의 은총이 얼마나 엄청나게 풍성한지를 앞으로 올 모든 시대에 보여 주려고 하셨습니다. ⁸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⁹인간의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¹⁰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청원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우리 교회
신앙의 모범이 되시어, 하늘의 어머니 화관을 쓰
시는 성모 마리아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기도합니
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영광스럽게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의 어머니가 되신 마리아를 기리며 청
하오니, 저도 주님께 한생을 바쳐 마지막 날 형제
자매들과 함께 주님을 뵈옵는 영광을 누리게 해
주소서. 아멘.

예경 기도

주님의 기도, 성모송(10번), 영광송, 구원송



부록

묵주기도의 유래와 의미

묵주기도를 통한 기도생활

묵주의 9일기도

묵주기도 안에 나오는 염경 기도문

묵주기도의 유래와 의미

‘장미화관’, ‘장미 꽃다발’ 이란 뜻을 지닌 라틴 어의 로사리움(rosarium)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묵주’, 혹은 ‘묵주기도’라고 합니다. 묵주(默珠)란 구슬이나 나무 알을 열 개씩 구분하여 여섯 마디로 엮은 염주 형식의 것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 물건이며, 이를 사용하여 성모 마리아께 전 구를 부탁하여 드리는 기도를 묵주기도라고 합니다. 전에는 매괴신공이라고도 했습니다.

묵주기도는 도미니코 성인이 선교를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모님이 나타나셔서 묵주를 주시며 기도하라 하셨다는 데서 시작되었다고도 합니다. 또는 12세기에 글을 모르는 신자들이 미사를 드릴 때 시편 구절을 잘 읽지 못하니까, 그 대신

주님의 기도를 3회에 걸쳐 150번 암송하던 관습에서 발전되었다고도 합니다.

교회에서는 신자들의 신심을 증진시키기 위해 신자들이 목주기도를 바치도록 권장해 왔습니다. 교황 성 비오 5세는 목주기도의 방식을 목상 기도와 염경 기도로 구성하여 표준화시켰습니다.

성모님은 1830년 파리에서, 1846년 라 살레떼에서, 1858년 루르드에서 벨라렛타에게, 1871년 폰트매인에서, 1917년 파티마에서 6번이나 발현 하실 때마다 죄인의 회개와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를 바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목주기도는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통해 언제나 하느님과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생활하도록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구원의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더욱 우리 자신을 주님과 일치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를 통한 기도생활

묵주기도는 염경 기도(기도문)를 계속 되풀이 하여 바치면서, ‘환희’와 ‘빛’과 ‘고통’과 ‘영광’의 각 신비마다 제시되어 있는 묵상 주제를 따라 더욱더 깊이 주님 구원의 신비를 깨닫고,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주님의 모습을 뵈오며 또한 주님의 그 신비에 참여하게 해줍니다.

염경 기도는 주님께서 직접 지어 주신 주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신자들에게 바치도록 만든 기도문을 다 함께 한목소리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묵주기도를 바칠 때 분심을 떨쳐 버리고 신비 안에 깊숙이 들어가기 위하여, 주님의 기도와 성모송과 영광송과 구원송을 계속 반복합니다.

묵상 기도는 주님의 신비를 생각하고 기려, 자신



의 매일 생활 안에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새기고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목주의 9일기도

교회는 전통적으로 성령 강림 대축일을 준비하는 9일기도를 바쳐왔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사도행전 1장 13-14절, 성모님과 함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했던 모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주의 9일기도는 매일 한 신비(5단)씩 ‘환희’, ‘빛’, ‘고통’, ‘영광’의 신비 순으로 9일씩 바치는 기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개인이나 공동체가 주님께 바라는 청원과 그 응답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3개의 신비를 9일씩 청원과 감사의 2과정으로 반복하여, 모두 54일 동안 바치기도 했습니다.

빛의 신비가 새로 추가된 다음에는 한 주간을

‘환희’ – ‘고통’ – ‘영광’ – ‘빛’ – ‘고통’ – ‘영광’의 신비 순으로 환희와 빛을 번갈아 세 개의 신비를 9일씩 기도하는 형식으로 총 27일 동안 바치셔도 되고, 이 27일을 청원과 감사 두 번씩 총 54일 동안 바치셔도 됩니다. 또는 네 개의 신비를 9일씩 바쳐 36일을 청원기도로, 다음 36일을 감사기도로 총 72일 기도를 바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54일 기도가 우리가 주님께 청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충분한 도구라고 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청하는 우리를 보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내려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총은 현실적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고 고통의 아픔을 치유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공동체 모두에게 주님의 뜻이 전달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주님의 은총이 현실적인 축복과 풍요와는 반대가 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 처녀가 아이를 가짐 – 당시의 풍습으로는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돌로 쳐죽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 청할 때에는 우리가 청하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기를 빌어야 하며, 주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이라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시켜 주시기를 아울러 청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주님께서 우리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았다고 포기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영 안 들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를 기다리며, 진실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 방향으로 나갈 때, 때가 차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만일 주님의 뜻 밖에 있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



안에서 수정하도록 깨우쳐 주실 것이요, 우리가 알아듣지 못했다면,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애정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 활동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청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안에서 세세 대대로 영원무궁토록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에페 3, 20-21)



묵주기도 앞에 나오는 염경 기도문

1. 성호경

(묵주기도를 통해 주님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고
자 하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묵주 십자고상의 다
리 부분에 입을 맞추고, 십자고상을 이마와 가슴
과 양어깨에 대며 성호를 긋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 사도 신경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며)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3. 주님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4. 성모송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5. 영광송

(밑줄 부분에서 고개를 숙이며)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6. 구원송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
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벼림받
은 영혼을 돌보소서.

7. 성모 찬송

- 모후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 귀양살이 끝날 때에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
소서.

†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써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May it be done to me
according to your word”

지은이 | 심홍보

발행 | 천주교 삼성동 성가정 성당
2013. 3. 31. (예수 부활 대축일)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112길 68
전화 | 512-0195
인쇄 | 가톨릭 출판사

